

전국 60여곳 하야 촛불…“언제까지 눈 감고 귀 막고 버틸텐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광장(맨 위), 부산 부산진구 서면 주디스타워 앞(가운데), 대구 중구 대종교통 전용지구(아래)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대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19일 광화문 60만·부산 2만명 등 95만명 촛불 집회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주말 촛불집회가 지난 19일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다발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지난 12일 시위 주최 측 추산 100만명(경찰 추산 26만명)이 모인 사상 최대 촛불집회이후 한 차례 숨고르기를 하는 계기로 관측됐다. 그러나 전국에서 주최 측 추산으로 95만명(경찰 추산 26만명)이 모이는 등 여전히 많은 시민이 촛불을 들었다.

◇서울에 60만 촛불=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4차 범국민행동’ 행사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컸던 서울 광화문 행사는 청소년, 여성, 법조인, 세월호 유가족, 노동자 등 كافة 시민들의 시국발언,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영상 상영,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직후여서 고3 수험생 참가자가 눈에 띄게 많았다. 정유라씨와 관련한 고등학교 학사 농단·대학 부정입학 의혹 등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는 당사자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상에 오른 수험생 배유진(18·대구)양은 “학생은 공부나 하라”는 말 들을가 봐 수능을 끝내고 올라왔다”면서 “선택할 시간을 충분히 줘는데 언제까지 눈 감고 귀 막고 그 자리에 있을 건가”라며 박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다.

‘박근혜 하야 전국 청소년 비상행동’은

이날 집회에 앞서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시국대회를 열어 “내일을 위해 오늘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던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비선 실세 앞에서는 어떻게 작용했다”라며 박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5만명(경찰 추산 1만3000명)이 참가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19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으로 정권한 민주공화국의 모든 가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현 시국을 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야권 주요 정치인도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박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다.

광화문에서 본행사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종로, 신문로, 새문안로 등을 지나 광화문 앞 을곡로상에있는 내자동로터리·적선동로터리·안국역로터리까지 행진했다. 을곡로는 청와대에서 1km가량 남쪽으로 떨어진 대로다.

다만 청운호자동 주민센터 앞까지는 행진을 금지하고, 창성동 별관과 삼성로 쪽은 오후 3시부터 2시간30분 동안만 행진하도록 조건을 뒀다. 청와대에서 불과 460m 떨어진 창성동 별관까지 행진이 허용된 것은 처음이다.

◇지역에서 “박근혜 퇴진”=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등 지방 주요 도시는 물론 상당수 중소도시까지 60여곳 시민들도 촛불 대오에 동참했다. 주최측은 전국에서 35만(경찰 7만)명이 촛불 물결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뒷받침 대구에서는 7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비상시

국회의가 ‘박근혜 퇴진 3차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 1만5000여명은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던 대통령이 또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시내 2.4km를 행진하면서 ‘박 대통령 하야’, ‘새누리당 해체’를 외쳤다.

부산에서는 2만여명이, 대전에서는 3만여명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이날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30만명이, 경찰은 오후 7시 기준으로 7만여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보수단체들은 이날 박 대통령 하야에 반대하며 야권과 진보진영을 비판하는 맞불집회를 개최했다.

박 대통령 팬클럽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80여개 보수단체는 서울역 광장에서 7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집회를 열어 박 대통령 하야를 ‘종북좌파들의 국가 전복 기도’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강제하야 절대반대’, ‘대통령을 사수하자’, ‘법치주의 수호



하자’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채 송례문과 서울역을 오가며 행진했다.

/연합뉴스

최순실 조카 장시호 구속영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철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최씨 조카인 장시호(37·자유진에서 개명)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4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김 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공모해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이 지원한 자금 일부를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삼성은 센터 측에 16억원을 지원했으나 실제 입금액은 5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상당액 액수를 장씨가 횡령한 게 아니지 의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유라 이대 입학 특혜 확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학 및 재학 당시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면접위원들은 정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정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점수를 조정했으며, 입학 후에도 출석대체의 근거 없이 정씨의 출석을 인정하고 시험을 보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이런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정씨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대에 요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최순실 사건 관련자 주요 공소 사실	
혐의	내용
미르·K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강요	● 정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강요	● 최순실이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교부하도록 강요
현대차그룹 관련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강요	● 최순실 지인 운영 업체 제조·판매사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 ● 최순실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하도록 강요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강요 및 강요미수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퓨터대 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 ● 포스코 팬시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순실 운영 더블루케이가 팬시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
KT관련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강요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동수와 신혜성을 각각 광고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로 채용하도록 한 후,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하도록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강요	●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
사기미수 (최순실)	K스포츠 재단을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용역비 7억원을 배내려 하였으나 재단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미수
공무상비밀누설	● 대통령 말소자,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47건의 공무상 비밀 포함)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
(●박 대통령이 공범인 혐의 내용)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나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 중에는 기소할 수 없어	
자료/검찰 특별수사본부	

미수금 회수대행

- 못받은 돈 -

▶채권 추심(회수) 전문

- 민사 채권: 판결문, 공증 외
- 상사 채권: 물품/공사/용역/매매대금, 장비대여 대금, 상가보증금 외

▶채무자(개인·법인) 재산 및 신용조사 (부동산, 차량, 중기, 거래은행, 신용상태 등)

▶연락두절 채무자 및 실거주지 파악

▶차용증, 각서, 은행입금내역, 계약서, 거래장부 등 모든 채권에 대한 명쾌한 상담 가능!

채권 추심 경력 20년 노하우

새한신용정보(주) (금감위 허가업체)

010-8607-1122 (전남대 법대졸업)

(062) 513-4307

정직·성실, 최선을 다해 회수해 드립니다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글씨는 쓰는 사람의 얼굴이고, 마음입니다.

내 아이의 성적 **팍 팍** 올려주는

글씨교정

1개월 완성, 원장직강, 책임지도
한글, 한자, 영어, 숫자

모음을 바로 세워주는 교정들

- 띄어쓰기, 문장부호 지도

글씨교정들 위에서
인지능력 키우고, 자신감 **두배**로

- 예비선생님반(필판글씨) · 취업반(논술체)
- 초, 중고(노트 필기체) · 성인반(공서체)

글씨교정기 교정노트 ▶출강지도 가능

글씨교정 창업반·강사반 모집

바른글씨 교육원

교육상담 062. 525-9933 062. 269-0112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벌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6. 11월 21일(월) ~ 12월 23일(토)
- 수강기간: 2016. 12월 19일(월) ~ 2017년 2월 4일(토)
매주 목요일 주간 10:00 ~ 12:00 야간: 19:00 ~ 21:00
- 수 강 료: 12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 접수문의: 062)230-7700 ~ 2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